

애독자세상

본 코너는 <월간당뇨>를 보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건의사항을 모아 답변과 방향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월간당뇨>를 보고 당뇨관리에 관한 궁금한 점, 그 달 내용에 관해 의문 나는 점, 당뇨관리를 하면서 궁금한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슐린 사용 환자인데, 장기간 인슐린을 사용해도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는지요?

많은 환자들이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당뇨치료의 끝인줄로 오해하고 인슐린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슐린은 한 번 맞는 다고해서 중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뇨관리가 제대로 유지된다면 인슐린에서 약으로, 또 아예 약물요법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은 장기간 복용해도 이상은 없으나 인슐린으로 인해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또 인슐린 주사로 인해 살이 찌수도 있으니 열량 조절과 체중 조절에 힘쓰셔야 하겠습니다.

혈당관리가 잘 되는 사례를 많이 알려주세요.

<월간당뇨>에 혈당관리 사례를 되도록 많이 실코자 하는 것이 편집자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당뇨병환자분들께서 본인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려는 분들이 아직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례를 위해 당뇨체험 수기 공모와 여러 가지 의견, 원고들을 협회에서 받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면 다른 당뇨병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외 당뇨교육이 있으면 합니다. 먹는 인슐린이 개발되었다는데 현재 치료가 가능한가요?

본 협회에서는 국내 당뇨교육 뿐만 아니라 해외 당뇨교육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지요. 앞으로 정부의 많은 지원과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본 협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먹는 인슐린의 경우 개발중에 있고, 시중에 나오려면 완벽한 임상 시험을 통과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1형 당뇨병(소아당뇨)에 대해 많은 사례와 혈당관리에 관한 정보를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 1형 당뇨병에 관한 다른 정보 또한 편집회의를 통해 자주 실도록 노력하겠습니다.